

# 한국현대희곡사 새 지평 연 개척자

## 정년 맞으며 「이성계의 부동산」 등 펴낸 이근삼교수

극작가 이근삼씨(65)의 이름 석자 앞에는 항상 그의 희곡이 한국현대희곡사 내지는 연극사에서 외롭도록 독보적이라는 함의를 지닌 수식어들이 붙어다닌다. ‘한국현대연극사의 지주’ ‘한국의 브레히트’ ‘천부적인 희극작가’ 등의 경칭이 그 견인차량들이다.

그 이근삼씨가 다섯번째 창작희곡집 「이성계의 부동산」(문학세계사)을 상재했다. TV단막극으로도 방영된 「막차 탄 동기동창」 「일요일의 불청객」 등을 비롯하여, 그의 첫 장막극인 「위대한 실종」(1963) 그리고 「이성계의 부동산」 「게사니」 「내일 그리고 또 내일」 「국보」 등 그의 지성과 재치가 넘치는 작품들이 수록돼 있다. 특히 그가 몸담고 있던 서강대에서의 정년퇴임과 같은 시기에 출간된 덕분에 본의 아니게 퇴임을 자축하는 책이란 의미도 지닌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기왕의 작품집에 수록하지 못했던 ‘문제작’들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는 그의 예술 반세기를 정리하는 희곡 집이라 할 수도 있다.

“이번 출판이 나의 은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창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은퇴가 있겠는가.”

### “창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은퇴가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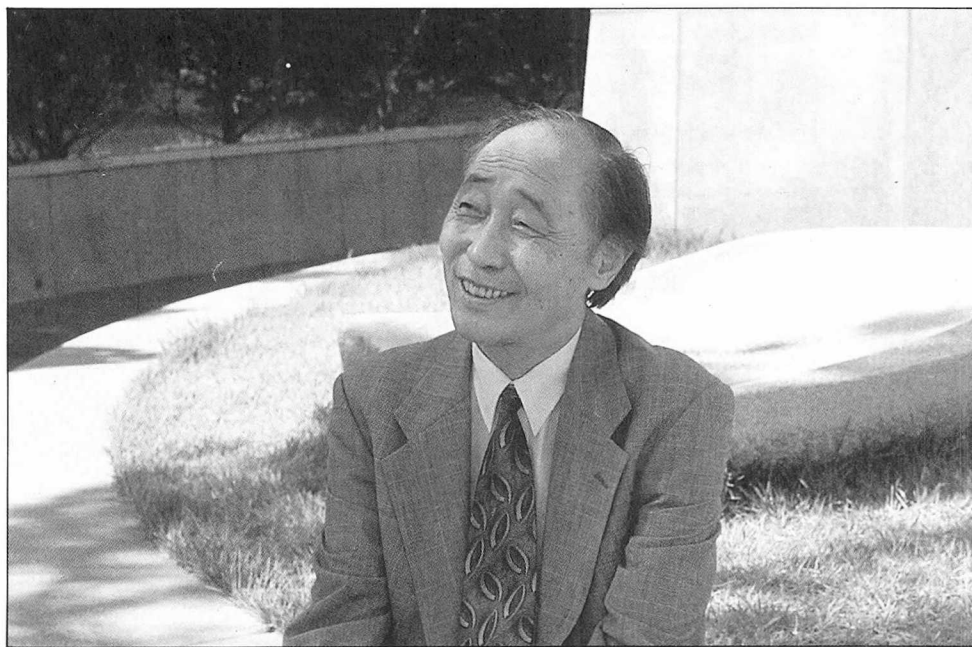
지난 9월 14일 정년퇴임식을 가진 그는 창작과 연구라는 두 마리 토끼 물이에서 이제 ‘전업작가’로서의 본격적인 새 출발이 한껏 기쁜 표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몸담았던 학교와 그가 길러낸 제자들을 각각 퇴임 기념 논문집과 수필집을 봉정, 인생장막극에서 ‘교수직 퇴장’이라는 연출자 사인을 보냈다.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에서 펴내는 논문집을 이근삼 정년기념 특집호로 꾸민 「연극, 문화 그리고 사회」와 정년기념사업회에서 펴낸 「무대와 교실」이 그것으로, 각각 ‘작가 이근삼’과 ‘인간 이근삼’을 다채롭게 조명하고 있다.

“42년간의 교직생활을 마감한 데 대한 특별한 소감은 없다. 해방감을 좀 느낄 뿐이다. 다만 작가로서의 인생을 되돌아보건대, 과거의 작품들이 일종의 만용의 소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야 연극을 좀 알 것 같다. 입센은 78세에 죽었는데 77세에도 작품을 썼다지 않은가.”

그의 표현대로라면 “만용”이지만, 연극평론가나 연구자의 입장에서 그 만용이 곧 그의 업적이 된다. 불모지에서는 개척자의 발걸

극작가 이근삼씨는 한국현대희곡사의 새 지평을 개척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다양한 형식실험, 새로운 희극양식은 기존연극에 새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만큼 전통적인 한국연극을 ‘망치는 놈’이란 소리도 들었다. 스스로는 “젊었을 적의 만용”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그 ‘만용’과 ‘망치는 놈’이란 욕은 그가 일궈낸 연극적 성과가 컸음을 의미한다.

이근삼 교수.



음이 죄다 첫발자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연보를 작성하자면 연대기적 선조성을 지닌 ‘사건’들이 자주 등재된다.

그의 첫작품 「끝없는 실마리」(1958)는 한국 사람이 영어로 쓴 최초의 희곡이다. 미국 유학시절 노스캐롤라이나 극회에서 공연됐다. 60년대 초엔 브레히트와 이오네스코를 우리나라에 소개했다. 「대머리 여가수」를 민중극단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그때가 1963년이었다. 최초의 뮤지컬도 썼고, 그는 한국최초의 본격적 희극작가라는 평도 들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장막극 「위대한 실종」(1963)이 1975년 허규씨의 연출로 국립극장에서 공연됐을 때의 일이다. 신성한 극장에서 영터리같은 코메디를 한다고 당시 연극계 원로들이 흥분했다. 전통적인 한국의 리얼리즘연극의 패턴을 망치는 놈이라고 미움도 많이 받았다.”

‘망치는 놈’ 소리를 듣게 했던 그의 기존연극 해제작업 또한 평자들에 의해 새로운 건설이었다는 평가를 듣는다. “이근삼의 출현은 한국현대희곡문학에서 희극정신의 탄생을 의미한다”(유민영)거나 “다양한 방법의 제시와 새로운 시도는 실로 우리 연극이 구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한 혁명같은 것”(서연호)이었다.

그는 연극을 “인류가 만든 가장 훌륭한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한다. 나와 남 사이에서 가장 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장르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관객 자체가 주요한

연극요소이니만큼 비로소 현장에서 완성되는 그 현재성이야말로 연극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 그중에서도 희극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그는 “성격 탓”이라고 말한다.

“비극과 희극은 동전의 양면이다. 인생이 동전의 양면같은 것인데, 한쪽만 본다면 어떻게 인생을 알 수 있겠는가. 좋은 희극이 없었다는 게 한국연극의 비극이다. 나는 희극을 쓸때 희극을 쓰겠다고 작정하지 않았다. 희극이건 비극이건, 통속극이건 신파극이건 작품성이 문제이지 장르 자체의 우월은 없는 것이다.”

### 한국최초의 본격적 희극작가로 평가돼

그는 희극의 존재이유를 비판정신에서 찾는다.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연극을 통해 커튼에 가려진 현실을 폭로하고자 하는 비판의식이 그의 기질과 어울려 쓰는데로 대개 희극을 만들어낸 셈이다. “많은 희극작가들은 잠혀들어갔다. 비극 쓰는 사람중엔 별로 없을 것이다.” 섬광의 예지와 천둥의 비판이 희극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느니만큼, 그의 희극은 쓴웃음을 자아내는 잔인한 희극이라고 회자된다.

이근삼씨의 연극인생은, 연어처럼 거슬러 오르자면 코홀리개 시절로까지 소급된다. 그의 고향 평양은 기독교가 제일 먼저 들어왔던 터라, ‘聖劇’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 “연극도 좋아했지만 공책이나 빵을 쥐서 자꾸 가다보니까 취미가 된 것”이다. 그는 평양사범 시절의 연극무대 풍경도 잊지 못한다. 그때 관객

들은 막이 많은 연극을 선호했다. 공연 자체보다 막간에 똑딱거리며 무대를 만드는 장면을 더 좋아했다. 그 재미에 한 연극을 두세번씩 본 사람도 많아서 “슬픈 장면이 나오기도 전에 미리 울고들 했다.” 배우들이 연기를 못하면 방석 등을 내던지기도 했다.

그의 본격적인 연극인생은 미국유학시절에 개막됐다. 1956년 미국장학재단의 선발시험에서 소설에 왕왕록씨, 시에 송옥씨, 그리고 희극분야에 그가 뽑힌 것이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마치 2차대전 후에 실존주의가 풍미했던 것처럼, 브레히트의 서사극과 이오네스코 등의 부조리연극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아직 우리 연극계에는 신파의 때를 갖 벗은 ‘소위 리얼리스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국내에서의 첫희곡인 「원고지」(1960)는 일종의 문화적 충격을 줄 만큼 신선한 바람을 몰고왔다. 4·19 즈음에 쓴 「대왕은 죽기를 거부했다」는 「사상계」에 발표하기로 예정했는데, “이승만 죽으라는 얘기 아닌가”하는 편집진의 노파심 덕분에 발표지면이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그 이후 「국물 있습니다」(1966), 「유랑극단」(1971) 등 지금도 꾸준히 공연되는 작품들을 써냈다.

“그러다가 TV가 등장했다. 텔레비전이 연극이 보여주던 모든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유랑극단」이 그 위기의식에 대한 고민의 소산이다. 내 작품은 다들 불안정하고 언밸런스한 것이 좋다고들 했는데, 그때부터 무대가

# 中國

12억 중국인을 감동시킨, 베이징 사람들의 꿈과 고뇌 그리고 사랑 이야기!

## 황청건 사람들

趙大年·陳建功 著 / 홍광훈 譯

전통과 현대화의  
갈등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중국인의 이야기



정가: 6,000원(상·하 각권)

동아출판사  
861-4818

당대 최고의 명의 진이탕.  
아내 뱃 속에 있는 아이를 낙태시킨  
데릴사위, 장취안  
경극가수로 성공하지만 사생아를 낳게  
되는 둘째딸 진지.  
현대적 제약시설로 금단을  
생산해내려는 야심가,  
쉬바이셴.  
중국 자금성의 작은 골목.  
황청건에서 금단제조의  
비방을 둘러싸고 이들이  
펼치는 갈등과 암투.  
그리고 개혁물결이  
휘몰아치는 현대 베이징의  
세대간 의식흐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황청건 사람들」—중국현대문학의  
새로움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중국 TV연속극으로  
제작방영되어  
호평받은 화제작



SF계 최고상 후고상과 네블러상을 동시에 수상한 아이작 아시모프의 최고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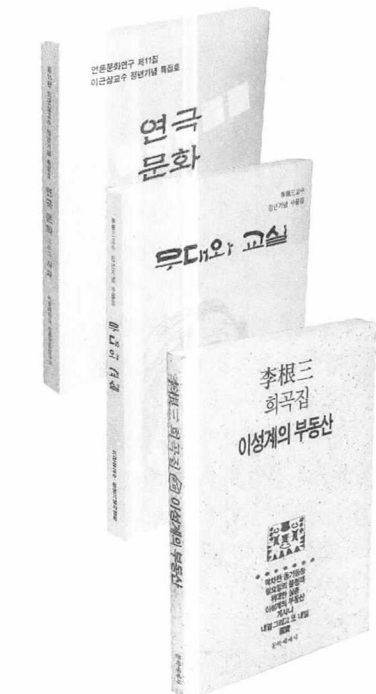
## 양자인간

### 너무나도 인간이 되고 싶었던 200살 로봇의 이야기

과연 인간 또는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존재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작 아시모프가 던지는  
가장 근원적이고  
실존적인 화두—  
양자인간은  
철학적 의문을  
인간 존재성에 관한  
인간 존재에 대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아출판사  
861-4818

지은이 :  
아이작 아시모프  
(Isaac Asimov)  
로버트 실버버그  
(Robert Silverberg)  
共著 / 박상준 譯  
정가: 6,000원



안정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최근 「이성계의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만35년간 46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고, 그때마다 호평을 들었지만 아직도 욕심부리고 싶은 일이 많다. “죽기 전에 진짜 이 작품은 정말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쓰고 싶다”는 것. 청탁받아 쓴 작품에는 “이상하게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물아홉 서른살 때 열정을 바쳤던 초기작들에 더 애착이 간다. 그런 점에서 요즘 중견작가들의 다산성에 대해 “자중하라”는 충고를 건네고 싶기도 하다.

“작품이란 작가의 아이디어의 폭발이다. 꼭 채워져 있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폭발하는 것이다. 나의 경우에는 2, 3년 구상했다가 어느날 불현듯 쓰여진 작품들이 아직껏 애정이 간다.”

이근삼씨의 창작욕은 혈기왕성한 청년과 진배없지만, 한국연극의 현실을 진단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정년퇴직한 원로가 된다. 자주 60년대와 비교하는 것이다. 연극 각 분야의 젊은이들이 인내심이 없다는 우려를 전한다. 이를테면 예전만 해도 연극배우가 주인공 한 번 하려면 20여년은 고생했는데, 지금은 영원한 아마추어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한편 그의 정년퇴임을 기념하여 후학과 제자들이 봉정한 수필집 「무대와 교실」은 그의 입으로는 말 못할 ‘인간 이근삼’의 면모를 다채롭게 펼쳐보인다. 60여편의 수필에 스케치된 이씨의 모습은 ‘애정어린 비판’의 이름으로 무언가 흠집을 내고 싶을 만큼 흥미와 존

경의 표현으로 가득하다.

한 수필에서는 “老者安之 朋友信之 少者懷之(노인에게에는 안도감을 주고, 친구에게는 신뢰감을 주며,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친근감을 주어 절로 따르게 한다)”는 공자말씀을 빌리기도 한다. 큰 나무의 향기에 취해 그 그늘에 누웠던 이들의 진솔한 얘기들이다. 마다한 적 없다는 술자리에서는 세익스피어를 “sex & beer”라고 가르치지만, 강의실 강의는 엄격했다고 한다. 수업준비에 불충실했던 어떤 제자는 그로 인해 “탱크 일개 군단이 (가슴 위로) 지나가는 것 같은 호통을 들었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정년기념 논문집에는 ‘이근삼 연극’의 핵심인 “유희성”에 대한 논문과, 또 하나의 핵심이라 운위되는 ‘희극성’을 뒤집어 “비극 정신”을 읽어내는 논문도 수록됐다. 그의 연극이 워낙 열린 텍스트여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 셈이다. 상이한 비평적 관점에도 불구하고, 논자들은 “이근삼 사후 그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란 질문에 “현재보다도 뛰어난 평가를 받을 것”에 “인생을 걸겠다”는 태세다.

#### 「세계연극사전」에도 나오는 극작가

비단 ‘안으로 굽은 팔’들만 상찬하는 것은 아니다. 한 「세계연극사전」은 “이근삼은 관객을 웃길 뿐만 아니라 생각케 하는 재능도 있다”고 진술한다. 유민영교수의 「한국현대희곡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1960년 벽두에 극작가 이근삼이 등장한 것은 비교적 고루하고 무거웠던 극장무대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킨 경우였다. 그 첫째가 진부할 정도로 정통 리얼리즘을 고수하고 있던 기존작가들의 사실 집착에 반기를 들고 서사기법 등 다양한 형식의 참신한 희곡이었고, 둘째로는 과거의 희극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전통적 희극형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희극양식이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여러 평가들에 대해 작가 이씨는 “남들은 그렇다고 그러는데……”라며 말머리를 돌렸다.

그는 후학들에게 “不急不怠”의 인생을 권한다. 서둘지도, 대만하지도 말라는 당부이다. 그러나 대개의 후학들은 “불급은 그대로 지키는데 불태는 잘 못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며 웃는다.

—김중식 기자